

Books

신간소개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교보문고

변화하는 콜롬비아: 경제성장과 사회적 과제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기획) | 이성훈(엮음),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출판일: 2015-12-31

ISBN(13): 9788946058637

416쪽 | 158*232mm

이 책은 현대 콜롬비아를 경제적·정치적·사회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정치적 갈등의 원인과 현실, 폭력의 기원과 현재적 양상, 콜롬비아 광물 자원의 현황,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콜롬비아가 추진

해야 할 대외경제정책, 콜롬비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빈곤과 불평등, 부패 문제 등을 다룬다.

‘제1부 콜롬비아의 산업 및 경제정책’에서는 콜롬비아가 추진하는 세계화 정책과 세계무대에 편입하기 위해서 태평양 지역이 콜롬비아 경제에 가지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콜롬비아가 경제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경제의 근간을 이루던 광물 자원의 이용에서부터 콜롬비아 산업정책에 대한 정책 분석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이후 한국 기업들이 진출 가능한 산업 분야를 파악하고 있다. 2013년에 체결한 한국·콜롬비아 FTA가 발효되면, 콜롬비아는 한국에 중요한 무역과 투자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 현실에 관한 시의성 있는 글도 포함했다.

‘제2부 콜롬비아의 사회 변동과 정치 안정’에서는 산토스 정부의 지향점과 우리네 정부와의 차이점을 통해 콜롬비아 정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교보문고

멕시코: 민주주의를 다시 묻다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기획) | 박수경(역음)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출판일: 2016-04-15

ISBN(13): 9788946058866

352쪽 | 153*224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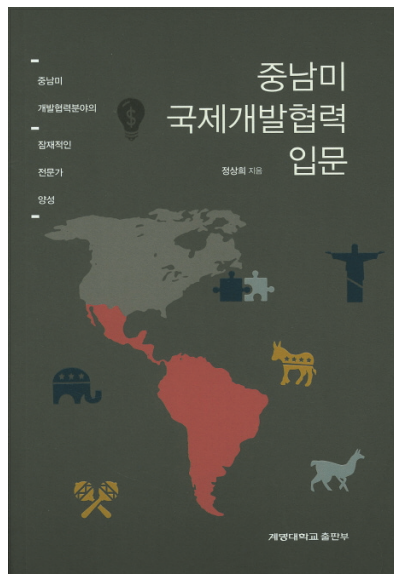
이 책은 멕시코에 관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혼란스러운 단편적 이미지들을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엮어냈다. 제도적 민주주의, 경제 양극화, 폭력과 마약과 조직범죄, 시민사회의 저항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 제도적 민주주의’의 확장에서는 2000년 제도혁명당의 70년 집권을 끝내고 정권교체를 이룬 이후 복수정당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와 정당정치가 형식적인 안정을 이룬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멕시코의 정치 지형이 한국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글이다.

‘제2부 경제적 민주주의를 둘러싼 사회변화’는 외환위기와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심각해진 경제 동조화를 분석함과 더불어 경제적 불평등, 이주, 길거리의 무허가 상인 등을 다루며 현재 멕시코의 경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제3부 민주주의와 공생하는 부패와 조직범죄’에는 제도적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적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불균형이 낳은 결과를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정치경제적 변동이 사회에 투영된 모습을 드러낸다.

끝으로 ‘제4부 민주주의의 사회화를 위한 저항’은 사회를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다수’의 노력을 담은 글을 실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배경으로 대학생 사이에서 돌연 등장한 ‘#나는132번째 운동’은 멕시코 청년 세대의 정치적 등장을 알린다. 그 외 멕시코시티자치대학교의 자치 지키기, 공유재산과 환경보호 등 멕시코 시민의 저항을 살펴보고 있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교보문고

중남미 국제개발협력 입문

정상희(지음)

출판사: 계명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16-02-05

ISBN(13): 9788975857317

247쪽 | 152*225mm

이 책은 ‘중남미 개발협력분야의 잠재적인 전문가 양성’이라는 큰 목표 아래 집필되었다. 총6장으로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와 중남미, 국제개발협력의 주요이슈,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바라본 중남미, 국제사회의 중남미 ODA 지원현황, 한국의 ODA 역사, 중남미 지원현황 및 사업사례 등 중남미 지역과 국제개발협력을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교보문고

쿠바리브레

윤기관(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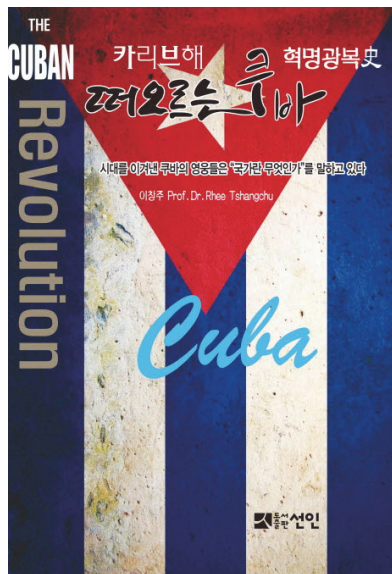
출판사: 궁미디어

출판일: 2016-02-28

ISBN(13): 9788975995668

252쪽 | 215*255mm

쿠바 관련 전반에 걸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실용서이다. 쿠바의 입장에서 즉 쿠바사람이 쿠바를 소개하듯이 긍정적인 시각에서 집필했다. 독자들은 이 책의 내용을 심도있게 숙독하고 실제로 쿠바를 방문하여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생산적인 여행’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교보문고

카리브해 떠오르는 쿠바 혁명광복사

이창주(지음)

출판사: 선인

출판일: 2015-11-25

ISBN(13): 9788959339389

300쪽 | 152*222mm

이 책은 국제정치학자 이창주 교수가 2년여의 각고로 중남미 관문 카리브 해를 품은 신비의 나라·영웅의 나라·혁명의 나라·작은 섬 국가가 세계 최강 미국의 반세기 이상 계속된 온갖 억압과 방해를 견뎌내고, 사회주의라는 자신들이 선택한 생활 방식, 체제, 주권을 지키며 사실상 미국의 항복을 받아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복귀하고 있는 쿠바의 역사·혁명·정치·경제·사회·문화를 사실적으로 탐사하고 인문학적 접근으로 추적하여 집필한 대하 실록이다. 잔혹의 역사를 넘어 매혹의 문화 예술과 낭만 정열을 간직하며 영혼을 사로 잡는 쿠바사회의 저력과 모두가 평등하게 고난했고, 가난하지만 찌뚱이 없는 삶으로 진한 감동을 주고 있는 쿠바의 내재된 트라우마, 빛과 그림자를 저자는 시대적으로 파악하고 기술했다.

이 책은 혁명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지만 민중을 향한 혁명은 자주적 광복으로 이어져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교정상화로 다시 상륙하는 미국의 양키이즘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정치·경제·사회를 변질시킬 것인지를 우려하고 그런 쿠바의 상황을 인민, 사회적 현대사로 조명하고 그려내는 데 초점을 두어 집필된 한국 최초의 쿠바사이다. 그동안 미국관점 중심의 외국 번역서에 의존해왔던 단편적인 쿠바에 대한 지식과 오해를 바로 잡고자 쿠바의 모든 것을 진실사적으로 과거 오늘 미래를 분석 전망하고 엮었다. 저자는 빠르게 변해가는 세계의 흐름과 환경에서 여전히 아름답게 한발짝 물러서 자본주의 세계가 잃어버린 순수한 낭만과 열정 휴머니즘이 있는 오늘의 쿠바를 민중학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교보문고

마지막 시장: 아프리카 & 중남미

정병도(지음) | 박승락(감수)

출판사: 필디앤씨

출판일: 2016-01-29

ISBN(13): 9788996334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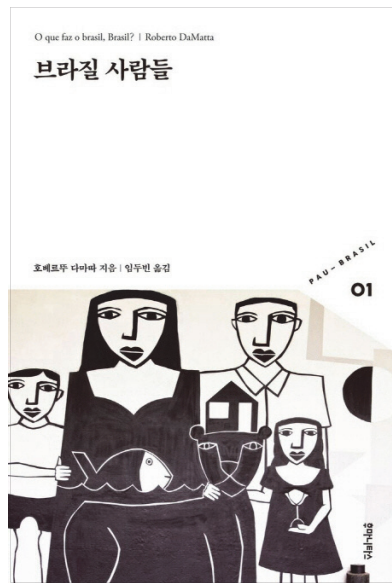
404쪽 | 155*225mm

아프리카와 중남미에 가방 하나 달랑 들고 20여 년을 쏘다닌 사나이가 있다. 그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웰마크(주)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정병도 대표이사이다. 이 책에는 저자가 직접 발로 뛰고 몸으로 체험한 두 대륙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부제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문화와 비즈니스 협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대륙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 그리고 비즈니스 이야기이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입문서인 만큼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저자가 직접 발로 뛰며 체험한 주요 국가별 문화와 비즈니스 협상 노하우가 담겨 있다. 각국의 협상문화와 협상 전략을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관점에서 독창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 결과가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국가와 이문화 협상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은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이 책은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무역인문학 서적으로 누구나 쉽게 읽고 우리가 몰랐던 아프리카와 중남미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관점을 제공하는 한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편견을 깨뜨린다. “기업의 미래와 부는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시장 선점에 달려 있다”는 저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프리카와 중남미 시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역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독해 볼 만하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교보문고

브라질 사람들

호베르투 다마타(지음) | 임두빈 (옮김)

원제: O que faz o Brasil, Brasil?

출판사: 후마니타스

출판일: 2015-11-30

ISBN(13): 9788964372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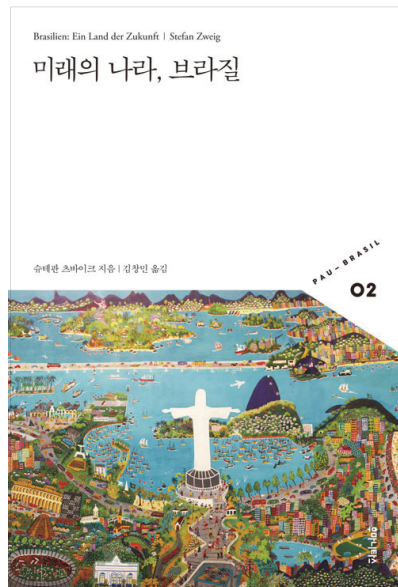
152쪽 | 152*225mm

빠우-브라질(Pau-Brasil) 총서 1권. 무엇이 소문자 브라질, 대문자 브라질을 만드는가? “O que faz o Brasil, Brasil?” 호베르투 다마타는 이 책의 1장에서부터 ‘소문자 브라질’과 ‘대문자 브라질’의 개념적인 구분을 강조하고 나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브라질은 단수의 브라질이 아닌 복수의 브라질 중의 하나에 불과했다.

우리에게 영토의 크기, 인구수, 국민총생산 등 성스럽고 진지하며 법적인 것에서 비롯된 ‘대문자 브라질’이 좀 더 일반적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다마타는 이 책에서 다른 관점과 질문을 통해 다른 차원의 ‘대문자 브라질’을 이 책에서 보여 준다.

사회·역사적 지식에 대해서 다루는 대신 저자는 브라질 국민들과 그들의 일상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소문자 브라질’을 다룬다. 언어 소통의 어려움 이외에도 한국 사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들만의 생각의 문법,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이런 미스터리와 의문은 풀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책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상기에 밝힌 대문자와 소문자로 쓰인 두 ‘브라질’ 사이에 존재하는 실제 관계가 무엇인지, 브라질 사람들이 ‘조국’이라고 부르는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를 독자뿐만 아니라 저자 스스로도 계속 탐구해가는 흥미로운 여정이다.



이미지 출처: 인터넷서점 알라딘

미래의 나라, 브라질

슈테판 츠바이크(지음) | 김창민(옮김)

원제: Brasilien: Ein Land der Zukunft

출판사: 후마니타스

출판일: 2016-02-29

ISBN : 9788964372449

반양장본 | 360쪽 | 225*152mm

빠우-브라질(Pau-Brasil) 총서 2권. 이 책 『미래의 나라, 브라질』은 정복 시대에서부터 1941년 당시까지 역사, 경제, 문화, 도시, 지역 등을 소개하는 브라질에 대한 종합 개설서라고 할 수 있다. 1936년 처음 브라질을 방문하게 된 작가는 다

음과 같이 첫인상을 적고 있다. “그 순간 바다와 산, 도시와 열대 자연의 비할 데 없는 조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가 눈앞에 펼쳐진 것만이 아니었다. 완전히 새롭다고 할 수 있는 문명이 또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나는 예상과는 전혀 달리 깨끗하고 정돈된 건축과 도시 구획으로 이루어진 완전히 새로운 그림 앞에 마주섰다. 새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대담하고 웅장했으며, 동시에 유럽과 떨어져 있는 덕분에 옛 문화가 아주 효과적으로 보전되어 있었다.”

저자 슈테판 츠바이크(1881-1942)는 오스트리아 빈 출생으로, 1935년 나치에 쫓겨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해 41년에는 브라질로 이주했다. 츠바이크는 브라질의 거대한 국토와 무궁무진한 지하자원에서 브라질을 넘어 전 인류의 경제적 희망을 엿보고, 다양한 인종이 관용과 화해 정신을 바탕으로 전대미문의 혼종문화를 이루어 가는 모습에서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광란에 빠진 유럽을 대체할 수 있는 문명적 대안 세계를 발견한다. 비록 그가 역사가도, 경제학자도, 지리학자도 아니지만 브라질의 역사, 지리, 경제, 문화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